세상을 바꾼 상징
고린도전서 2: 1-5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떤 종류의 피자를 좋아하십니까(페퍼로니, 햄과 파인애플, 지중해)? 무료 피자를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전 지금 피자가 없습니다. 저희 윌링던 카페는 페퍼로니 피자가 정말 맛있습니다.

무료 피자, 도넛, 게임을 충분히 제공하면 군중을 끌어들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피자로 사람들을 사로잡으면 피자가 사라지면 그들도 사라집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당신이 그들을 이끈 것입니다."(카일 아이들먼, Not a Fan)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는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고자 할까요?

1. 내용(세상을 바꾼 것): 1-2절
2. 담긴 그릇(변화된 마음): 3-4절
3. 목적(변화된 확신): 5절

먼저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라고 썼습니다. 그는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됨) 고린도 사람들이 처음으로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암시합니다. 그는 그들을 “아델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형제자매”를 의미하는 가족 단어입니다.

저자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이 만드는 즉각적인 변화 중 하나는 문법입니다. 나 대신 우리 - 나의 대신 우리의 - 나 대신 우리"(유진 피터슨).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가족이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제자매입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 자녀인 고린도 사람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고전 4:15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인들은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증거"(1절)입니다. 고대 사본에서 더 나은 해석은 "하나님의 신비"일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미스터리"라는 단어는 깨달은 사람만 아는 비밀스럽거나 신비로운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평범한 사람들과 차별화시키는 다른 세상의 경험을 가리켰습니다.

바울은 구약성경에서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한때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계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6:25-26a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바울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언급하기 위해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너무나 심오해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엄격한 연구자라도 이를 풀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신비"는 하나님만이 밝힐 수 있는 진리를 말합니다. 인간은 이 진리를 찾지 못합니다. 진리가 인간을 찾는 것입니다.

신비의 핵심은 예수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신비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리신 예수입니다. 그는 풍성한 은혜와 진리로 오셨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2: 2b-3).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그의 신비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 인간은 무한한 진리의 창고, 바울이 2장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깊은 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이 깊은 것들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지각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알기"로 의도적으로 결심했고, 그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인정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선한 사람, 도덕 철학자, 뛰어난 윤리를 가진 사람, 좋은 길을 보여주는 사람으로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야 했습니다(1:23; 2:2).

지난 주말에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가 우리 죗값을 치르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죄, 죽음, 악마의 힘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의 임재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약속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의롭게 되고, 성령으로 변화되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와 같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개개인의 마음과 정신을 변화시키고, 신앙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고, 그 결과 전체 문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는 엄청난 주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면 무엇이 바뀌나요? 우리의 예배, 기도, 설교, 성찬식(주님의 만찬)의 중심에 십자가를 두면 무엇이 바뀌나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 즉 자기 발전, 명예, 지위, 부를 중시하는 사회의 중심에 십자가를 놓으면 무엇이 바뀌게 될까요?

포르투갈어에는 "Tudo acabou em pizza"라는 멋진 관용 표현이 있는데, 번역하면 "모든 것이 피자로 끝났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정치적 스캔들이 발생하고, 미디어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부패가 폭로되고, 국가적 격변이 발생하고, 사법 제도가 절차를 늦추고, 은폐가 감지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피고인은 무사히 사라지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글쎄요, 십자가의 스캔들과 예루살렘의 소동, 그리고 예수의 추종자들의 흩어짐으로 모든 것이 피자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우리 부족이나 국가에 속하지 않아도 우리의 위로와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종종 그들에게 도움을 보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취약하며, 억압받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이 자랑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고문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노예제도를 혐오합니다.
우리는 영아 살해에 경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인류가 항상 믿어왔고, 항상 가치 있게 여겨왔으며, 항상 자명한 것으로 여겨온 것 아닌가요?

제가 나열한 것들 중 어느 것도 바울 시대의 고린도인들에게는 분명하지 않았을 것이며, 역사를 통틀어 세계 각지의 사람들에게도 자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자명했습니다.

사람들은 평등하게 창조되지 않았다.
약자를 잔혹하게 대하고 억압하는 것이 괜찮다.
노예제도는 보편적이어야 하며 도전받아서는 안 된다.
권력 있는 남성이 취약한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 괜찮다(당연한 것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
원치 않는 아기들은 버려질 수 있다(쓰레기장에서 아기들을 구조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성, 지위, 승리를 자랑해야 했다(군사 장군들은 자신이 죽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자랑했습니다).
이주민들이 지중해에서 익사하도록 방치될 수 있었다(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외국인들을 신경 써야 했겠습니까?)
기부를 한다면, 그것은 대중적인 과시와 함께 이루어져야 했다(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지, 결코 비밀리에 하지 않았습니다).
고문이 행해져도 괜찮다.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며칠 동안 그대로 두는 것이 괜찮다(반란을 꾀하는 노예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자 권력에 반대하는 것을 고려하는 시민들에 대한 경고로서).

보시다시피, 십자가는 세상의 방식을 상징했습니다. 세상이 항상 그래왔던 방식을. 부자들, 권력자들, 엘리트들이 지시하고 지배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성경 해설가 앤드류 윌슨은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단 한 번 뒤집힌 적이 있는데, 그것은 갈보리에서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역사상 가장 놀라운 전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약함의 정수

를 강함의 정수와 맞서게 하고, 약함이 승리합니다" (앤드류 윌슨, 1 고린도전서 For You, p. 19, 21).

피 흘리고, 노출되고, 쇠약해지고 죽어가는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잔혹한 힘과 지혜(세상이 알던 가장 강력하고, 부유하며, 막을 수 없는 제국)에 맞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에 의해 추방된 유대인인 프리스킬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황제 네로는 공포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불탔을 때,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는 무시당하던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십자가에 못 박고 산 채로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역사학자 T.R. 글로버가 쓴 것처럼,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아들을 바울이라 부르고, 그들의 개를 네로라고 부를 날이 올 것입니다" (T.R. 글로버, 역사의 예수).

최근 몇 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인류 문명의 이러한 전환이 역사학자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톰 홀랜드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즉시 스파이더맨으로 더 잘 알려진 피터 파커 역을 맡은 배우를 떠올릴 것입니다.

제가 언급하는 톰 홀랜드는 '도미니온: 기독교 혁명이 어떻게 세상을 재창조했는가'라는 대작을 쓴 영국 역사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의 책에서 홀랜드는 하나의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 그리스-로마 세계의 가혹한 권력이 어떻게 현대 서구 세계의 해방적인 힘이 되었는가?

그의 답은 그 자신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의 결론에서 홀랜드는 이렇게 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어떤 인간도 겪은 적 없는 끔찍한 죽음을 겪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고문 도구였던 십자가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기독교 혁명의 적절한 상징으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비틀리고 패배한 시체에서 우주 창조자의 영광을 발견하는 그 대담함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기독교의 순수한 기이함과 그것이 탄생시킨 문명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날에도 그 기이함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기 동안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휩쓴 대규모 개종의 물결에서 나타나고, 살아있는 불과 같은 성령의 숨결이 여전히 세상에 불어온다고 믿는 수백만의 확신 속에서, 그리고 유럽과 북미에서 자신을 결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백만의 사람들의 가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은 같은 혁명의 상속자입니다. 그 혁명의 중심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톰 홀랜드, 도미니언: 기독교 혁명이 세상을 재창조한 방법, p. 524-525)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서양 문명을 재형성했으며, 사실상 세상을 변화시켰고, 우리는 그 사실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는 실제로 우리 문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은 미움보다 사랑을, 교만보다 겸손을, 폭력보다 희생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자의 지혜와 강자의 권력을 혼란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을 바꾼 내용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경배 받는 인물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2) 변화된 마음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어리석은 내용을 담아 변화된 마음을 지닌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메시지를 담은 연약한 그릇이었습니다.
3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문화적으로 세련된 고린도의 설교자들의 강함, 자신감, 담대함과는 달리, 바울은 연약하고 겸손하며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과 함께한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연약하고 불충분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약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분함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나요?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이 지닌 무한한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생명과 죽음이 걸린 일임을 깨달았고, 스스로 매우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설교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고후 12:9-10).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미련한 메시지를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위엄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1절에서 그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전 1:17에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말"은 잘 다듬어진 구절들로 구성된 정교한 담화를 의미하며, "나는 너보다 우월하고 더 많이 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철학적 지혜와 웅변의 중심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이름을 날리고자 한다면 꼭 가야할 할 장소였습니다. 수사학적으로 뛰어나거나 열정적인 연사를 중심으로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웅변의 힘은 명성과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면에서 이것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특히 연사가 몇 개의 학위나 책, 팟캐스트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설득의 기술이나 논쟁적 토론, 인간의 논리로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언어의 대가가 아니었나요?" 그럼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고대 문학 중 하나인 사랑에 관한 13장의 서정적인 아름다움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리고 20세기가 지난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바울의 말들, 예를 들어 "세상의 더러운 것" (4:13),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 (9:22), "산을 옮기는 믿음" (13:2), "홀연히" (15:52) 같은 표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바울은 분명히 언어를 잘 사용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목을 끌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무대에서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철학적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태도는 겸손했고 그의 말은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3장 후반부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분이 사랑을 정의하십니다."

바울은 반지성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지적 자만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과시할 수 있는 방법과 전술을 일부러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설교자로 여겨지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미련한 메신저였던 바울은 세상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초점은 결코 그가 아니었습니다(고린도후서 4장 5절). 세상도 또한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혜와 웅변의 재능을 가진 교사들 뒤에 줄을 섰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그들의 교만을 깨뜨리고 교회의 가족을 분열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얻느냐에 따라 그들을 그것으로 이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장식된 설득의 기술로 오기보다는,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왔습니다(4절). 고린도인들의 마음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변화되었습니다.

톰 홀랜드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으로 기름부음이 있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세례에 관한 설교를 들은 후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성령과 은혜의 체험에 대해 많이 읽었습니다. 그날 아침, 무언가가 내게 내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처럼, 비둘기처럼 말이죠.” 십자가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울이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그의 목적을 밝힙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린도전서 2장 5절). 바울은 다만 십자가의 말씀을 전파하여 고린도인들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님과 그분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뿌리를 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항상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의해 생성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작성되고, 그로부터 비롯되며, 그 능력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의 사역에 자신의 신뢰를 두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충격은 피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십억 명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왔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윌링던 교회에서는 무료 피자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값없는 구원이라는 선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게 죽고, 새 생명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따르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할리우드의 동화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라고,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었으며, 죽음에서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실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킨 내용이며, 연약한 그릇들에 의해 운반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변형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완전한 신뢰를 둘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께서 우리를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에서는 교회 구성원들은 그 당신 자신들의 고린도식 사고방식과 가치를 성찬식에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열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교사, 사회적 지위, 그리고 부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가족의 일부 구성원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제자매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그들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식사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 희생해야 할 추구가 있습니까? 교회 가족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화해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까?
침묵 속에서 묵상하는 시간 (그분을 경배하고, 감사하며, 죄를 고백하십시오).

성찬식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백성과 하나 되도록 찢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 찢겼습니다. 함께 참여합시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흘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졌습니다. 함께 참여합시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집으로 돌아갈 것임을 선언합니다!